

# 정현, 세계테니스계가 인정한 강심장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3위)이 올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위기에 강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정현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ATP 투어 BB&T 애틀랜타 오픈 단식 2회전에서 세계랭킹 65위 테일러 프리츠(21·미국)를 2-0(6-4 7-6(7-5))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5월8일 ATP 투어 마드리드 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이후 발목 부상 때문에 투어 대회에 나서지 못하던 정현은 두 달 반 만에 복귀전에서 승리를 맛봤다.

ATP 투어 홈페이지는 복귀한 정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가 ATP 투어가 집계하는 위기관리(Under Pressure) 지수 부문 1위에 올라있다고 소개했다.

위기관리 지수는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를 살리는 확률, 브레이크 포인트 위기에 몰렸을 때 막아내는 확률, 타이브레이크 승률, 마지막 세트 승률을 바탕으로 하는 수치다. 정현은 이 부문에서 247.6점을

지난 5월8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복귀전勝  
“위기 상황, 호흡 가다듬고 차분함 유지”



받아 1위를 달리고 있다. 니시코리 게이(29·일본·20위)가 246.9점으로 2위,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30·아르헨티나·4위)가 246.7점으로 3위다. 밀로스 라오니치(28·캐나다·30위)가 245.7점으로 4위다. 세계랭킹 2위 로저 페더러(37·스위스)가 245.5점으로 5위에 올라 있고, 1위 라파엘 나달(32·스페

인)은 238.7점으로 7위다. 정현은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상대 서브게임을 가져올 확률 43.6%로 7위, 상대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막아낼 확률 65.2%로 19위, 타이브레이크 승률 69.6%로 4위, 마지막 세트 승률 69.2%로 15위를 차지했다.

정현은 ATP 투어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위기 상황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비결을 전했다.

네빌 고드윈 코치는 “중요한 순간에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경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능력이 수치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상 탓에 2개월 반 동안 공백기를 가진 정현은 “남은 시즌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목표고 시즌 초반에 보여준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은 애틀랜타 오픈 8강에서 세계랭킹 53위 라이언 해리슨(26·미국)과 맞대결한다.

뉴시스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편성 결과

그룹A	그룹B	그룹C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홍콩	우즈베키스탄	중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대만	카타르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룹D	그룹E	그룹F
일본	대한민국	북한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란
네팔	바레인	미얀마
	아랍에미리트	

자료: 대한축구협회

## 김학범 감독 “기존 일정 백지화 어려워도 쉬워도 우리가 해결”

아시안게임서 1개팀 추가 총 5개팀 편성...1경기 더 치뤄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한국 축구가 조별리그에서 4경기를 치르게 됐다. 다시 이뤄진 조 추첨에서, 누락됐던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이 속한 E조에 편성되면서 한 경기를 더 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본부에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 추첨을 다시 한 결과, 첫 번째 조 추첨에서 빠진 UAE가 한국이 속한 E조에 추가됐다.

한국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 UAE까지 총 5개국이 토너먼트 진출을 다투게 됐다. 무거운 날씨로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한 경기를 더 벌이게 됐다.

소식을 접한 김학범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예상대로 나왔다. 분명히 우리 조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다른 국가보다 먼저 일정에 돌입한다. 8월 10일 혹은 12일에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를 것으로 관측된다. 8월 9일로 예정돼 있는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김 감독은 “우리 조가 다섯 팀이 되면서 기존 일정은 백지화됐다. 지금 새로운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한다”며 “5팀이 되면서 첫 경기 일정이 당겨지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바뀐다. 경기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차피 어려워도 쉬워도 해야 한다. 무조건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어려운 점은 5팀이라기보다 5팀이 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날씨에 1경기를 더 뛰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빨리 출발해야 하는데 속수 등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 현지에서 더 길게 체류하는 것이 상대 분석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 우리가 모두 하나로 뭉쳐서 꼭 좋은 성적을 약속드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아직 합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유럽과 황희찬(찰츠부르크), 이승우(베로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계속 구단과 좀더 협상을 하고 있다”며 “개막전 전에는 전부 다 들어오는 걸로 봐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발을 맞춰보고 현지 적응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경기 일정과 장소는 곧 확정된다.

뉴시스

## “오승환, 콜로라도 트레이드 임박”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트레이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력 행선지는 콜로라도 로키스다.

뉴욕 메츠 단장을 지냈던 스티브 필립스는 26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식통에 따르면 토론토가 오승환 트레이드를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으로 트레이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존 모로시 기자도 자신의 트위터에 “토론토가 오승환을 콜로라도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거의 마쳤다”고 전했다.

캐나다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넷’의 벤 니콜슨 스미스 기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 경기 도중 오승환이 불펜을 떠났다면서 “트레이드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연장에 돌입하면서 오승환과 그의 통역이 불펜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가 오승환을 받는 대가로 유망주 2명을 내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토론토와 계약기간 1+1년, 연봉 최대 750만 달러에 계약한 오승환은 중간계투로 48경기에 등판해 47이닝을 던지면서 4승 3패 2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점 2.88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토론토가 수준급 불펜 투수인 오승환을 내주고 유망주를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 독일 프로축구 진출 이재성 “K리그 자존심 걸고 도전”

“K리그 자존심을 걸고 도전하겠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홀슈타인 킬로 동지를 옮기는 이재성이 이적을 앞두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성은 26일 전북 현대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재성은 “늘 마음속에 해의 진출의 꿈을 품고 있었다”라며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시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꿈과 축구를 해외에서 펼쳐보고 싶었고 그곳에서 뛰는 선수들을 상대로 내 축구 실력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전북에서 4년6개월간 선수 생활을 한 이재성은 “팬들이 보내준 응원과 성원이 힘이 됐다. 행복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재성은 또



독일 구단으로의 이적에 대해 “내 도전이 아니라 모두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성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K리그의 자존심, 전북현대의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이 길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홀슈타인 킬은 1부리그 팀은 아니지만 2부리그 상위권으로 승격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이재성을 비로 주전급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제22회 무안 연꽃축제

2018. 8.9(목) ~ 8.12(일) / 4일간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 주요행사

- 이-쿨존(얼음나라)
- 연자방 소망등 달기
- 백련 가래떡 나눔잔치
- 연빛달빛 사랑의 퍼레이드
- 연꽃방죽 AR 보물찾기
- 발이공공 연꽃얼음물길

